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노경완 책임연구원(bnk1021111@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2021년 50.5% 급등하며 최근 10년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45.4% 오르며 상승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수급불균형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탄소중립 기조 강화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 공급불안 완화,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산원가 상승으로 주력산업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지역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권은 총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지역 기업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활력이 크게 약화된 지역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동남권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중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금년에도 큰 폭의 가격 상승세 지속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2021년중 전년대비 50.5%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중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금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45.4%의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¹⁾.

원자재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석탄·천연가스·원유 등)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1년 66.6% 상승하며 2020년 기록한 큰 폭의 하락세(△30.7%)에서 벗어났으며 금년 1분기에도 62.7%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속 부문과 농산물 부문도 금년 1분기중 각각 28.7%, 24.4%의 상승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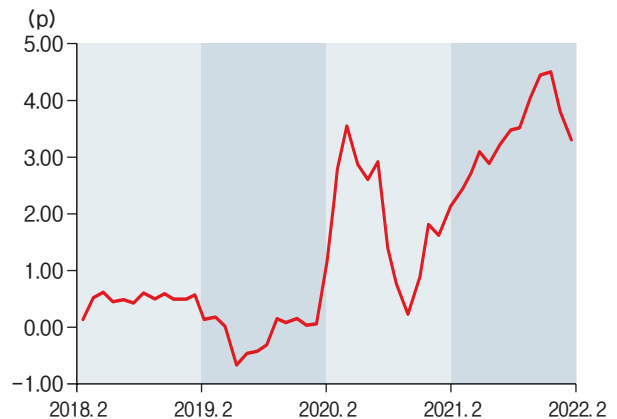
이와같은 원자재 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수급불균형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이 지목된다. 공급망 혼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²⁾의 경우 2021년말 기준 4.5p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수가 개발된 1997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1Q
원자재	△8.1	△18.0	50.5	45.4
· 에너지	△11.2	△30.7	66.6	62.7
· 금 속	△3.0	2.8	42.4	28.7
· 농산물	△4.6	7.1	28.3	24.4

주 : 1)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S&P GSCI 지수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추이



주 : 지수가 0보다 높을수록 공급망 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 코로나 이전 대비 원자재지수 상승률(2019년말 대비 2022.3월말 상승률)

· 원자재(66.0%), 농산물(79.6%), 에너지(68.4%), 금속(63.7%)

2)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 미 연방준비제도 산하 뉴욕연방은행에서 개발한 지표로 운송 비용, 국가별 제조 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망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량화한 지표. 지수값 "0"이 평범한 상태를 의미하고 값이 커질수록 이례적인 현상을 의미

에너지

2021년 에너지 가격은 원자재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및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³⁾와 생산⁴⁾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에너지별로 살펴보면 원유와 천연가스는 세계 2위 생산국 러시아의 공급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금지, SWIFT 차단, 신규채권·지분투자 제재 등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등의 공급차질 우려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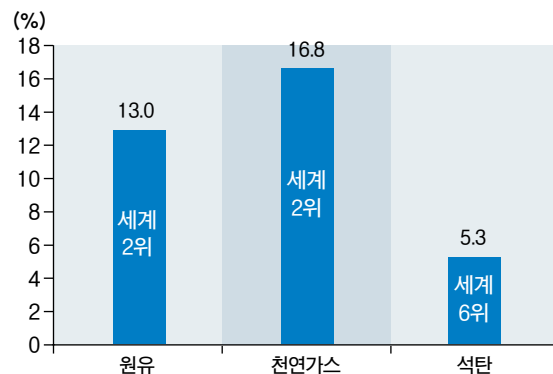
석탄의 경우 금년 1분기중 200% 이상 급등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석탄 수출 중단조치와 함께 EU 등 주요 에너지 소비국의 석탄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⁵⁾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에너지 가격 상승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1Q
석탄	△27.3	△22.8	127.0	204.0
천연가스	△17.6	△15.7	75.0	68.5
원유 (WTI)	△11.9	△30.6	72.7	64.4

주 : 1)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원유는 현물가격, 천연가스 및 석탄은 선물가격 기준(NYMEX)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연합인포맥스

러시아 에너지 생산 비중



주 : 원유·석탄은 2020년, 천연가스는 2019년 생산량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2020년중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8% 감소,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천연가스 투자가 △31.4% 석탄은 △9.0% 감소한 것으로 조사.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6.9% 증가

4) 생산이 줄어들면서 OECD 원유재고는 2020.7월 3,212백만 배럴에서 2022.3월 2,614백만 배럴로 △18.6% 감소. 미국 원유 재고도 같은기간 1,454백만 배럴에서 1,151백만 배럴로 △20.8% 감소

5)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안보 위협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체 에너지로 석탄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금속

금속 가격은 2021년중 급등세를 보이며 에너지 부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철광석 가격은 2021.5월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속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철금속 가격상승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그린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차·재생에너지 등은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비철금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⁶⁾. 반면 공급의 경우 칠레, 페루 등 일부 광산의 작업 차질 및 물류지연⁷⁾ 등으로 상당부분 차질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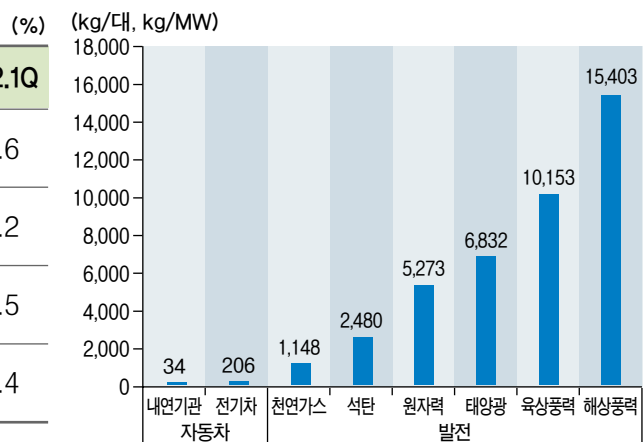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2위, 니켈 생산 3위일 뿐만 아니라 팔라듐, 플래티늄, 니켈 등 다양한 비철금속의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⁸⁾.

주요 금속 가격 상승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1Q
알루미늄	△14.3	△4.4	43.5	54.6
니켈	6.0	△0.8	33.2	50.2
아연	△13.3	△9.0	31.9	34.5
구리	△8.0	3.0	49.9	17.4

주 : 1)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LME거래소 선물가격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주요에너지 활용분야별 비철금속 사용량



자료 : IEA

6) 구리·알루미늄 등은 전력망 구성에 중요하며 전기차용 배터리에는 리튬·니켈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
7) 2021.2월 미국의 이상 환파 등으로 물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공컨테이너 회수 지연 등이 발생
8) 품목별 러시아 생산량 비중(국제금융센터, 한국무역협회, statista)
· 팔라듐(42.9%), 플래티늄(15.1%), 니켈(11.3%), 금(9.2%), 알루미늄(5.6%), 구리(3.3%), 은(2.6%) 등

농산물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옥수수, 대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주요 생산지인 미국, 브라질 지역의 기상이변⁹⁾, 중국의 곡물 수입 확대¹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해상운임 등 물류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41.2% 상승한 소맥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소맥 생산비중은 15.8%로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9.8%로 5위 생산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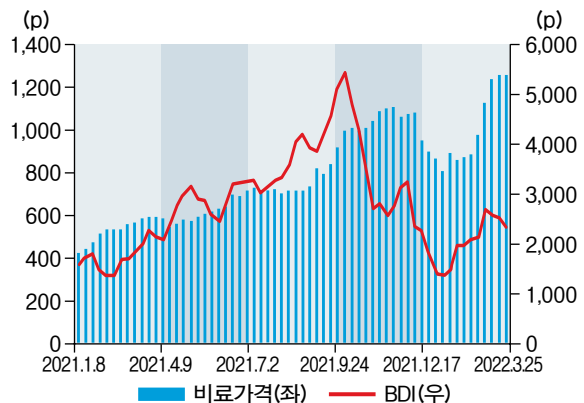
한편 옥수수와 대두는 세계 최대 생산지역인 남미의 기상불안 반복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가격이 오른 것도 옥수수·대두 등의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1Q
소맥	△0.3	11.3	27.8	41.2
옥수수	4.1	△5.2	60.2	24.6
대두	△4.5	7.1	44.2	12.2

주 : 1)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CBOT거래소 선물가격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비료가격 및 해상운임 추이



주 : 국제비료가격은 북미 비료가격지수,
해상운임은 벌크선운임지수(BDI) 기준
자료 : green markets, 인베스팅닷컴

9) 라니냐 현상(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0.5℃ 이상 낮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상당지역에 가뭄을 불러오며 동남아시아와 호주 지역에는 홍수의 원인으로 작용

10) 홍수에 따른 작황 부진, 사료용 곡물 수입 증가, 미국산 농산물 구매합의 이행 등으로 중국 수입수요 확대

* 미국산 곡물 대중국 수출량(천M/T)

· 옥수수 312(2019년) → 7,052(2020년) → 18,818(2021년)

· 대두 22,612(2019년) → 34,226(2020년) → 27,311(2021년)

11)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가 질소비료 생산의 주요 매개체이므로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비료가격은 밀접한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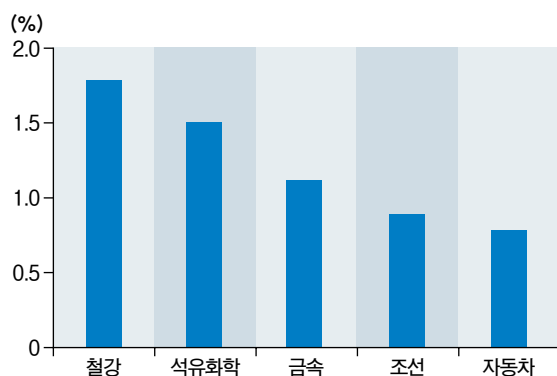
생산원가 상승으로 동남권 주력산업 수익개선 지연

동남권은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조선 산업도 수주 호조세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는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익 감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역 산업계 전반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¹²⁾.

특히 동남권 산업구조는 원자재 가격 등락이 생산원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업종 중심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생산원가가 평균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남권 주력업종인 철강(1.8%), 석유화학(1.5%), 금속(1.1%), 조선(0.9%), 자동차(0.8%) 등의 상승폭은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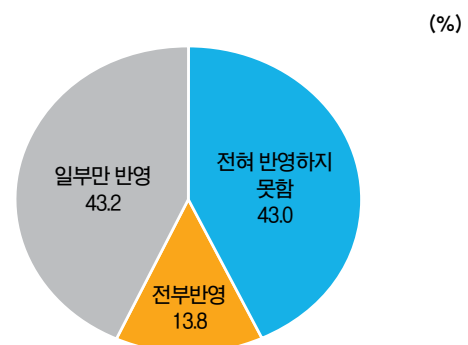
또한 납품처와의 관계 등으로 생산원가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탁기업의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하는 기업 비중이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원자재가격 10% 상승시 생산원가 상승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비중



주 :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2021.7월)
2) 500개 중소기업 전화면접조사 실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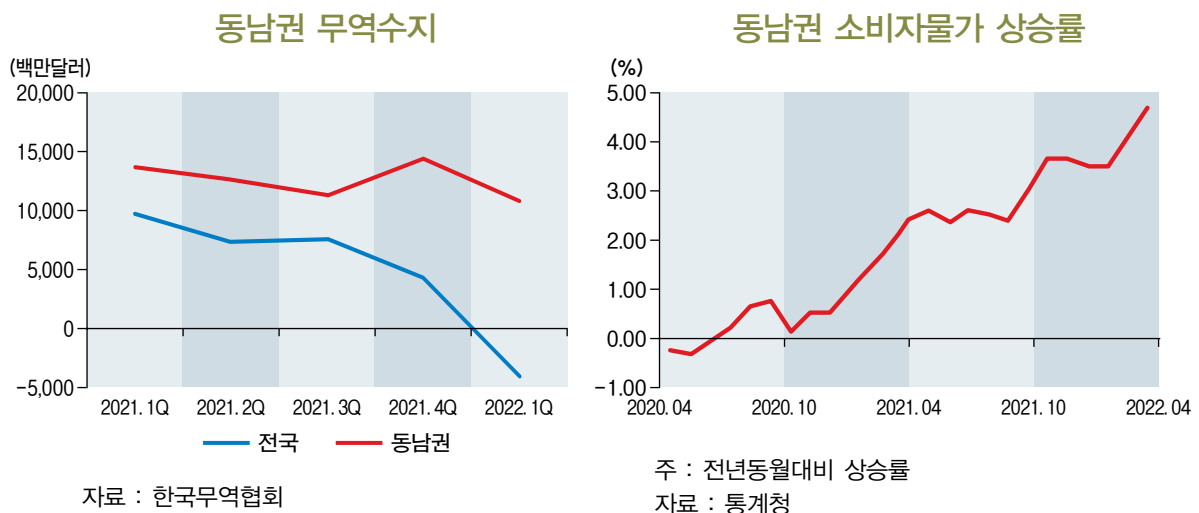
12) 2021년 수입물가 상승률은 21.1%로 1980년(27.5%) 이후 최대 상승률 기록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하방 압력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역경제 하방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1분기중 동남권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1분기중 3천 6백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남의 흑자폭은 전년동기대비 62.2% 줄었다. 다만 울산은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6.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급등을 야기하면서 지역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남권 소비자물가는 금년 4월중 4.7% 상승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팜유 사태¹⁴⁾ 등 불확실성 요인도 산재하고 있어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¹⁵⁾.



13) 동남권 시도별 무역수지(백만달러,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21.1Q	2021.2Q	2021.3Q	2021.4Q	2022.1Q
부 산	△186	△211	△280	108	△36
울 산	8,469	8,572	7,776	8,755	8,984
경 남	5,493	4,428	4,003	5,694	2,077

14) 수입 팜유 가격은 1톤당 1,453달러로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15) 2022.1분기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통계청)

석유류	과실	외식	가공식품	화장품	내구재	총지수
22.5	8.8	6.1	5.3	4.8	2.9	3.8

원자재 가격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 유지할 전망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금년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¹⁶⁾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기조도 강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전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 원자재 공급불안 일부 완화¹⁷⁾,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투자 및 투기수요 위축, 상하이 등 중국의 대도시 봉쇄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등은 가격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동남권의 경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큰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남권은 총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2021년 기준)에 달하며 전국 평균 49.2%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¹⁸⁾.

원자재 품목별 가격전망

(\$/배럴, \$/MMBtu, \$/톤, \$/부셀)

구분		2020년	2021년	2022.1Q	2022.2Q	2022.2H
에너지	원유(WTI)	39.6	68.3	95.5	77.0	73.0
	천연가스	2.1	3.7	4.6	3.8	3.9
	석탄	60.0	137.0	266.0	210.0	165.0
농산물	소맥	5.50	7.02	9.13	10.58	9.69
	옥수수	3.63	5.82	6.73	7.18	6.73
	대두	9.53	13.75	15.62	16.38	14.88
금속	알루미늄	1,732	2,486	3,256	3,325	3,393
	구리	6,199	9,295	9,979	9,925	9,892
	니켈	13,863	18,467	26,470	25,750	24,375

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16)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러시아 제재조치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17) 미국·일본 등 전략비축유 방출,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페루 최대 구리광산 Las Bambas 생산능력 확대 등

18) 총수입중 원자재 수입 비중 : 전국 49.2%, 동남권 71.9%(울산 91.2%, 경남 56.7%, 부산 42.0%)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삼중고로 지역 기업 어려움 가중 지역 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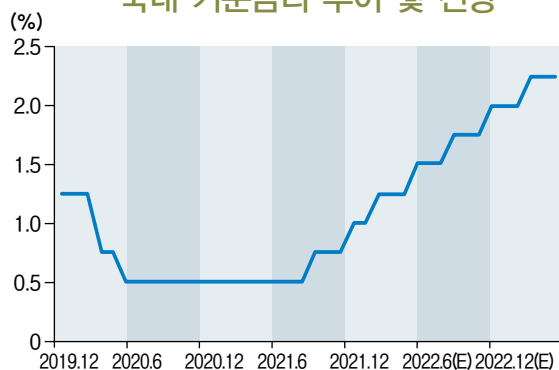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원가 상승 및 소비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인해 금리 상승세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 5월 미국 연준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도 금년중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금리 상승 압력 확대는 지역기업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환율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주요국 원자재 수출 중단¹⁹⁾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자비용 증가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시장 의존도가 높아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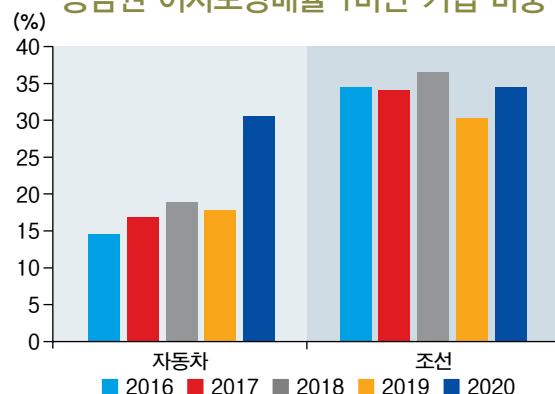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동남권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2020년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동남권 자동차 및 조선 기업이 각각 30.9%, 35.0%에 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동남권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주 : 금리 전망치는 JP모건 발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JP모건

동남권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주 : 동남권 기업중 재무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1,038개사, 조선 537개 기준
자료 : KISLINE

19) 인도네시아는 국내 발전용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2022.1월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2022년 보크사이트, 2023년 구리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광물시장에 공급 부족 우려 확대

20)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 비중이 2021년 기준 99.4%로 대기업 71.7%보다 크게 높아 금융긴축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조사

[참고] 주요 원자재 국가별 생산비중

(%)

구분	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에너지	원유	미국 (14.9)	러시아 (13.0)	사우디 (12.4)	캐나다 (5.5)	이라크 (5.4)	48.8
	석탄	중국 (50.6)	인도 (9.2)	인도네시아 (7.4)	호주 (6.6)	미국 (6.4)	19.8
	천연가스	미국 (23.8)	러시아 (16.8)	이란 (5.9)	중국 (4.4)	캐나다 (4.4)	44.7
금속	철광석	호주 (35.5)	브라질 (15.0)	중국 (14.2)	인도 (9.5)	러시아 (3.9)	21.8
	구리	칠레 (27.8)	페루 (10.4)	중국 (8.3)	콩고 (7.8)	미국 (5.8)	39.9
	알루미늄	중국 (57.0)	러시아 (5.6)	인도 (5.5)	캐나다 (4.8)	UAE (3.9)	23.2
	니켈	인도네시아 (30.7)	필리핀 (13.3)	러시아 (11.3)	뉴칼레도니아 (8.0)	호주 (6.7)	30.0
	리튬	호주 (46.3)	칠레 (23.9)	중국 (16.2)	아르헨티나 (7.2)	브라질 (2.2)	4.2
	아연	중국 (33.9)	페루 (10.9)	호주 (9.9)	유럽 (8.8)	미국 (6.2)	30.3
	코발트	콩고 (70.6)	러시아 (4.5)	호주 (3.3)	필리핀 (2.6)	캐나다 (2.5)	16.5
	팔라듐	러시아 (42.9)	남아프리카 (33.9)	캐나다 (9.2)	미국 (3.7)	짐바브웨 (6.0)	1.3
농산물	옥수수	미국 (31.8)	브라질 (21.5)	아르헨티나 (19.5)	우크라이나 (13.8)	EU (2.5)	10.9
	소맥	EU (1.8)	러시아 (15.8)	호주 (13.5)	미국 (13.5)	우크라이나 (9.8)	28.9
	대두	브라질 (37.3)	미국 (32.4)	아르헨티나 (12.5)	중국 (4.4)	인도 (3.2)	10.2
희귀가스	네온	우크라이나 (70.0)					30.0
	크립톤	러시아-우크라이나 (80.0)					20.0
희토류		중국 (60.6)	미국 (15.5)	미얀마 (9.4)	호주 (7.9)	태국 (2.9)	3.7

주 : 1) ()는 비중임.

2) 2020년 생산량 기준

(단, 천연가스 · 아연은 2019년, 철광석 · 코발트 · 곡물 · 희토류는 2021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Statista, 언론종합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국제원자재 시장동향 및 주요 이슈,” 2022.04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 2022.03
 중소기업중앙회,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0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2.04
 한국무역협회,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2022.04
 한국무역협회,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2021.05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한국자원정보서비스, www.kores.net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향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쌍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4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4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